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22년 1월 21일(금) (윤력 12월 19일) Пятница 21 января 2022г. № 2 (11969)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사할린 주지사, 새고려신문의 이예식 사진기자에게 감사장 수여

지난 18일(화) 러시아 출판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사할린 주지사는 주내 언론인들에게 표창장과 상장을 수여했다. 눈보라 때문에 미뤄진 행사(1월 13일 예정)에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언론은 정부와 사회를 이어주는 실입니다. 언론은 사할린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할린과 쿠릴열도가 당면한 전략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지역 정부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언론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를 굳건히 단결시킬 수도 있고, 분열시킬 수도 있습니다. 언론인의 전문적인 작업과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보도는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역의 사회적 상황과 발전은 이에 크게 좌우됩니다."라며 강조했다.

이날 포상을 받은 언론인 중에서 새고려신문사의 이예식 사진기자도 있었다. 다큐 사진의 장인으로 인정받은 그는 주지사의 감사장(본사 추천)과 우수 사진기자로 사할린주 형성 75주년 기념 배지(사할린주 기자협회 추천)를 받았다. 2개의 포상을 받은 언론인은 그가 유일하다.

(본사 기자)
(사진: 주정부 정보정책국 제공)

유즈노사할린스크, 3일간 2개월 강설량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2~14일 3일간 사할린에 눈보라가 쳤다. 적설량은 거의 2개월치의 양이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제설작업이었다. 눈이 많이 쌓여서 주 중앙 도시는 야외버스도 며칠 동안 끊겼고, 도시 북부지역(루고워예, 노워알렉산드롭스크 등), 서부지역(달네예 등), 서남지역(트로이츠코예, 노워트로이츠코예 등)까지 버스가 다니지 못했다. 눈보라가 끝나고서야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은 바로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다.



제설작업은 밤낮으로 이어졌다. 밤 제설작업에 평균 300여대 차량(트랙터, 화물차 등), 낮 제설작업에도 거의 같은 수의 특수장비를 이용한다. 제설작업에 풍설 때 도로에 버린 개인차들이 큰 방해가 되었다.

19일 오전 정보에 따르면 도시 395 곳의 쓰레기 하치장 중 309곳에 쓰레기 차가 접촉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큰 도로 제설작업은 거의 끝났고 현재는 공목과 주택 단지 내 제설작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눈이 너무 많아서 지금 사용하는 눈매립장(북, 남) 2개 외 또 2개를 개장하기로 했다.

풍설과 제설작업으로 인해 유즈노사할린스크 학생들은 1월 12일부터 다음주 24일까지 비대면 교육을 받고 있다.

(본사 기자)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행정부 제공)

사할린의 학교들, 폭발물 신고 접수

사할린에서는 1월 17일부터 4일 연속으로 폭발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학교들에서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 코르사코브학교와 유치원에서도 이런 사실이 밝혀져 아이들이 연속으로 대피해야 했다. 20일(수) 아침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여러 학교에서 폭발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다행히 유즈노사할린스크 학생들은 이미 1주일 넘게 원격수업을 받고 있다

20일 11시경 유즈노사할린스크시청을 비롯해 사할린주의 49개 기관(주로 교육기관)에 폭탄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기관 외에 코르사코브 교육기관에 대한 신고가 있었다. 사할린국립대의 건물들도 '폭탄하겠다'는 신고도 들어왔다. 신고된 모든 현장에 전문가들이 출동했다.

먼저 러시아 본토에서 폭발물 신고 물결이 시작되었고, 며칠 후 사할린 지역에 도달하였다. 신고는 주로 학교, 유치원, 보건기관 및 기타 공공 장소와 관련되어 접수되고 있다.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 러시아 연방 조사위원장이 여러 지역의 학교와 유치원 내에 폭발물과 관련해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크라스노야르스크, 노워시비르스크, 트웨리, 사할린 지역에서 이러한 지침이 내려졌다.

(본사 기자)

단신

네벨스크, 57년전인 배링해에서 참사한 어부들 추모

지금부터 57년전, 1965년 1월 19일, 배링해 탐사단 4팀의 120명이 참사를 당하는 비극이 있었다. 네벨스크에서는 어부로서 마지막 항해를 떠났던 네벨스크의 모든 주민들을 추모했다.

추모식에서 네벨스크 정교회 '성모 성탄교회'의 콘스탄틴 주교가 바다에서 참사를 당한 영혼들을 위한 위령제를 거행했고, 선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항만 선장, 네벨스크 지역, 주수산협회, 주 정부 대표들이 기념비에 헌화했다.

사할린주, 팬데믹 시작부터 600여명 사망

주 보건부는 1월 19일 기준 코로나19에 대한 통계를 발표한다.

확진자 1,535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중 539명이 입원치료를 하고 있다.

사망자 603명, 입원 가능한 병상 204개다. 하루 신규 확진자 203명.

현재까지 263,632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이 중 일일 통계로는 처음 접종을 받는 사람이 397명, 재접종 - 1048명, 총 45,416명이 접종 받았으며, 백신 비축량은 95,218 회분이다.

새고려신문

2022년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 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코로나19 퇴치 신규 조치 오미크론, 원격, 병리적 휴무 축소

러시아에서 오미크론 코로나 19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신년 연휴 기간에 1일 확진자 수는 2배 오른 3만 명에 달했고, 전국 87개 행정자치지역 중 67개 지역에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지금도 지배적인 '델타'바이러스 확진자가 이미 60%에 달한다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정부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타치야나 골리코와 부총리가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기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40%로 모스크바와 모스크바주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하는 추세다.

오미크론으로 확진자 입원 수가 아직은 급증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는 이미 새로운 조치들로서 기숙사 및 숙박 시설 운영을 폐쇄하고, 의료기관 진료는 원격으로 예약하며, 사회적 지원 조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오미크론 특성상 감염으로 인한 격리 조치는 14일에서 7일로 축소된다.

정부가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마련하는 가운데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의료기관에 확진자 급증에 따른 준비를 갖추고, 무엇보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특성상 가장 중요한 의료 업무는 외래환자 진료 연결망이라고 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이 모든 계획에 대한 논의가 보고되며, 정부는 한번 더 채택된 조치들과 검토를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평가할 방침이라고 미슈스틴 총리가 밝혔다.

새로운 조치들의 실행을 위한 점검은 코로나19 퇴치 연방 비상대책부수장인 골리코와 부총리가 감독하면서 세심한 주의를 갖고 전국 지역들과 24시간 실시간 소통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또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방역 조치 준수를 강화하고, 검사량을 늘리며, 테스트 시스템 생산을 늘리도록 했다. 기업들에는 생산에 차질이 없이 가능하다면 직원들 근무를 원격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했고, 올해 2월 17일-19일에 시리우스 연방장에서 열릴 러시아 투자포럼도 취소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사할린에 출현했을 가능성

사할린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비해 보건 시스템을 총가동시키고 있다. 19일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경고했다. 러시아의 지역들에서 오미크론의 감염이 매일 발견되는 중에 극동 지역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왔다.

사할린주에서는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의 60%가 29세 - 45세의 연령대이다. 이 자료는 새해 연휴 기간에 기록된 것으로 특히 위험한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증상은 독감과 비슷하여 고열이 5일에서 10일 이상 지속된다.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를 고려해 볼 때 해당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임상 사례가 보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사할린의 검사 자료들은 모두 중앙 연구소로 보내어져 확인이 지연되기도 한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그랬었다. 전염병 연구가들은 임상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데 코로나19의 중증이든 경증이든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취약계층은 항상 존재한다."고 사할린주 전염병 대표 연구가인 욱사나 솔로니나가 말했다.

스포츠

사할린주, 리듬체조 극동지역 선수권대회 진행

극동 지역 리듬체조 선수권대회가 1월 19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작되었다. "위스토크" 훈련센터에서 열린 이 대회에 아무르·사할린·마가단 주, 자바이칼리예, 연해주, 캄차트카, 하바롭스크 변경, 부랴치야 및 사하(야쿠치야)공화국과 유대인 자치구 선수 300여 명이 참가했다.

러시아 1급 스포츠 카테고리

의 체조선수들과 스포츠 대가인 후보들이 러시아 챔피언십 및 국제 스포츠 경기 '아시아의 아이들' 출전권을 놓고 경쟁한다. 선수들은 개인경기, 그룹경기, 팀경기에 참가하게 된다.

이 대회는 1월 21일까지 계속되며 마무리로 최종 공연이 있을 것이라고 주체육부에서 전했다.

사할린, 11회 러시아 스키 크로스컨트리 동계대회 2단계 개최

1월 19일(수) 17세-18세 청소년 러시아 스키 크로스컨트리 제11회 학생 동계 체육대회 2단계가 '트리움프' 바이에슬론 스키장에서 시작되었다.

사할린의 스키 코스에서 메달과 본선 경기 참가권을 두고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경쟁하기 위해 캄차트카, 연해주, 하바롭스크 변경, 부랴치야, 야쿠치야 아무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의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첫날에는 클래식 유형으로 경기를 치른 가운데 여학생은 10km 남학생은 15km를 달렸다.

둘째 날 참가자들은 단거리 경기에서 메달을 두고 경쟁했다.

1월 22일에는 자유형으로 여학생 5km, 남학생 10km 경주를 치르고, 1월 23일에는 릴레이 경주로 여학생 4명이 3km씩 남학생 4명은 5km씩 계주 경기가 오전 11시 '트리움프' 바이에슬론 단지에서 열렸다.

이 모 저 모

쿠릴열도 2개의 만에 소련 영웅들의 이름을 붙여

쿠릴열도 해안 2개의 만에 소련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명칭을 붙였다. 이를 위해 태평양 해군 보병대 소대 1급 병장 니콜라이 율코브, 해군 병사 표트르 일리초브가 선정되었다.

"태평양 함대에 조국 영웅들을 기려 이름을 붙였는데 니콜라이 율코브는 대형 상륙 함대에, 표트르 일리초브의 이름은 현재 발트해에서 공장 출시 시험을 마친 방어 진지의 수위를 제거하는 최신 함대에 붙여졌다."고 러시아 국방부에서 밝혔다.

1945년 8월 9일부터 9월 2일까지 소련 적위대가 25일간 남 사할린과 쿠릴열도 작전을 펼쳤으며 이에 수천 명의 소련 장병들이 이 전투에 참전하여 일본군을 이겼다.

남 사할린과 쿠릴열도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태평양 함대 장병들 명단에는 약 2천 명의 이름이 수록돼 있다.

소련군은 적군을 격퇴한 후에 100명 이상의 장병들에게 훈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소련 최고 영웅 칭호는 14명이 받았는데 그중 해군 보병대 소대 1급 병장 니콜라이 율코브와 해군 병사 표트르 일리초브가 있다. 이들은 적의 포탄을 몸으로 막아냈다.

Двум бухтам на Курилах присвоили имена Героев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честь Героев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назвали две бухты у побережья острова Юрий Курильской гряды. Для этого были выбраны имена пехотинцев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старшины 1-й статьи Николая Вилкова и краснофлотца Петра Ильичева.

«На Тихоокеанском флоте чтут память Героев Отечества. Имя Николая Вилкова носит большой десантный корабль в составе флота, а имя Петра Ильичева получил новейший корабль противоминной обороны, который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завершает заводские ходовые испытания на Балтике», —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военного ведомства.

В далеком 1945 году с 9 августа и по 2 сентября в ходе 25-дневно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и Курильской операции Красная армия одержала победу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В битве участвовало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советских солдат. В списке воинов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отдавших жизни в боях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насчитывается около 2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сле разгрома вражеской армии советское командование наградило более сотни солдат орденами и медалями. Высокое звание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олучили 14 военных, в том числе и командир взвода морской пехоты старшина 1-й статьи Николай Вилков и

краснофлотец Петр Ильичев. Они закрыли своими телами амбразуру дота противника.

사할린 체호브 센터, 세익스피어 초연 준비

사할린 체호브 센터가 새로운 연극 연습에 들어갔다. 가장 대표작이자, 변형 연출되는 연극 작품 '오네긴'을 첫 동작연극으로 성공적으로 연출한 체호브 센터의 연출감독팀이 새로운 작품연출에 나섰다.

이번 초연은 대규모 무대 장식, 창작곡과 화려한 의상, 흥미롭게 연출된 소품들로 더욱 웅장하게 진행된다.

〈세익스피어.꿈〉연극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5개 작품을 통합하고 있는데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맥베스', '햄릿', '리어왕', '오셀로' 작품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후기 작품인 '겨울 이야기'작으로 이야기 구성이 엮인다.

연극 감독 마르가리타 크라스니흐는 지난해에 작품 아이디어가 탄생되었다며 "대형 방식의 변형 연출된 연극 상연에 대해 대화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체호브 센터의 미술 총감독인 키릴 피스쿠노브와 즉시 세익스피어의 작품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호브 센터의 연극단은 이미 첫 연극 연습에 돌입했다. 전투 장면은 앞으로 줄거리의 주요 구성요소가 될 거라 전망하는 가운데 무대에서 벌어지는 전투 장면은 세르게이 세르게예브 극장 배우가 맡는다.

〈세익스피어.꿈〉(16세 이상) 연극 공연은 3월 26일과 27일에 열린다고 체호브 센터 측이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й Чехов-центр готовится к премьере по Шекспиру

В сахалинском Чехов-центре приступили к репетициям новой премьеры. Над ней работает постановочная команда, подарившая островным зрителям первый в истории Чехов-центра пластический спектакль Opegin, который стал настоящим хитом. Премьерная постановка обещает быть еще грандиознее: масштабная декорация, авторская музыка, шикарные костюмы и интересные режиссерские находки.

Премьера "Шекспир.Сон" объединит в себе пять произведений Уильяма Шекспира. Трагедии "Макбет", "Гамлет", "Король Лир", "Отелло" будут сюжетно окаймлены менее известным творением автора — поздней пьесой "Зимняя сказка". Режиссер спектакля Маргарита Красных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идея родилась весной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гда зашел разговор о пластической постановке большой формы, мы с главным художником Чехов-центра Кириллом Пискуновым практически сразу решили, что это будет Шекспир.»

Труппа Чехов-центра уже приступила к первым репетициям. Важными составляющими будущей истории

станут сцены сражений. Постановщиком сценического боя выступил артист театра Сергей Сергеев.

Премьера постановки "Шекспир.Сон" (16+) состоится 26 и 27 март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Чехов-центра.

사할린 여성 300만 루블리 사기당해

1월 15일, 러시아 내무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건 담당 부에 오하 구역 네크라슈카 마을에 거주하는 54세의 여성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던 가운데, 2021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신원불명인이 사기 방식으로 이 여성에게서 3백21만 루블리를 갈취했다는 내용이다.

이 여성은 인터넷상에서 '투자에 대하여'라는 광고를 보고 링크를 따라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현금 적립 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전했다. 피해 여성은 차례차례 위의 금액을 4개 은행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후 신원불명인은 이 여성과 통신을 끊어버렸다.

같은 날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사는 64세의 남성이 경찰서를 방문했다. 이 남성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사기 방식으로 그에게서 74만 8천500루블리가 갈취당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전화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회사 사이트로 들어가 투자로 수익을 챙기기로 했다. 그리고 신원불명자가 그에게 연락해 전자거래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고 알렸다. 피해자는 5만 루블리를 자신의 전자계좌에 넣고, 이후 7만5천 루블리를 제시된 수취인의 번호로 이체했다. 여기에 더해 중개인 계좌 충전을 위해 1만5천 루블리를 이체했다. 이후 이 앱으로 들어가려 한 피해자는 계좌가 차단된 것을 발견했다. 이후 협잡꾼들은 투자자에게 5천 달러를 지불해 투자 계좌에 대한 보증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사기 당한 것을 깨닫고 사법기관을 찾아 신고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36세의 한 남성은 지역 사이트에 스키 헬멧 판매에 대한 광고를 올렸다. 이후 운송회사를 통해 매물을 구매할 준비가 된 잠재적 구매자가 그에게 연락을 했다. 그는 링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은행 카드번호도 입력하자 돈이 빠져나갔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한 주민은 사냥 장비를 팔려고 했다가 같은 방식으로 4천500루블리를 잃었다.

또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30세 남성은 같은 방식으로 은밀한 서비스 비용 1만 루블리를 지불했으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다. 인터넷 탐색창에서 적절한 광고를 찾아 이후 제공된 링크를 따라 들어가 제시한 번호로 송금하자 이후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다.

(8면에 계속)

'미즈호 마을에서 학살된 조선인은 말없는 희생자가 아니다. 희생자 수와 이들의 본명을 밝혀내는 것이 연구자들의 과제이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7일 있는 온라인 간담회에서 <미즈호마을 사할린한인학살 사건>을 살펴보았다. 아래에 **진 올리아** 박사의 발표문(번역 바딤 슬랩첸코, 감수 박혜신)을 게재한다.

1945년 8월 일제에 의한 조선인 학살이라는 주제는 연구자에게 매우 어려운 주제이다. 첫째, 민족적 갈등을 바탕으로 진행된 학살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콘스탄틴 고파넬코의 소설 '미즈호 마을의 비극'과 블라디미르 그린의 '평생 이별'의 소설에서 이러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 작가들은 확실하고 믿을 만한 역사적 출처와 문서를 다루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소설을 통해 그 당시 사건을 연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2019년에는 KBS 기자들이 사할린을 방문해 이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을 계기로 그 당시 나는 러시아 연방보안원(FSB) 사할린주 사무국에 문서 공개 신청서를 낸 적이 있었다. 그리고 1년 반이나 지난 후, 얼마 전 미즈호 마을에서 일어난 대학살 사건에 대한 문서들이 우리 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물론 앞으로 이 문서들을 중심으로 자세한 연구를 책으로 쓸 예정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사실을 공유하고자 한다.

오늘 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싶다. 첫째,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포넬코의 책과 약간 불일치하고 있다. 가포넬코의 소설을 읽을 때 한 가지 이상한 사실무근의 특징을 발견했다. 이것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비인격화이다. 그의 책을 읽으면 일본인들만 보인다. 일본인들은 모두 다 이름이 있고, 친척이 있다. 그들은 술도 마시고, 화도 내고 자신의 동료에게 빈정대고,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로 묘사된다. 물론 대부분 나쁜 사람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이들은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조선인들은 인격이 없는 존재로 묘사되었다. 그들은 실제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으며, 그저 살려달라고 부탁하며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인들이 방어하거나 저항하려는 장면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 묘사된 조선인들에게는 이름도 없다. 가끔 가포넬코는 일부 조선인들의 일본 이름을 언급하지만, 소설의 줄거리에 따라서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렇게 적었다. 한편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특정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는 블라디미르 그린의 책(그린은 가포넬코와 아는 사이였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큼)에서 조선인들의 이름을 숨기는 것은 저자의 전략이었다는 설명이 있다. 따라서 이 두 작가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부러 숨겼다고 판단된다.

나는 문학평론가가 아니라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생각에 조선인들에 대한 이러한 비인격화는 20세기 전반의 조선에 대한 소련 문학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은 저항도, 반항도 하지 않고 일본이 가하는 모든 나쁜 짓을 그대로 수용하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희생자로 묘사되었다. 조선은 희생자의 모습 외에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운명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나라일 뿐이었다. 그렇게 소련 문학에서도 조선인이 묘사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열람할 수 있는 문서에서 이것은 순전히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들겠다.

그 당시 학살 사건 중에 가장 끔찍한 사건은 5명의 자녀를 둔 여성과 그녀의 친척을 살해한 사건이다. 그 여성은 자신의 남편(문서에서 그는 그의 일본 성 마루야마로 불림), 그리고 몇몇의 다른 조선인들과 같이 마루야마가 임대한 일본 콘베라는 일본인 소유의 이른바 하치고센 오두막에서 살았다. 이때 이 조선인들을 죽이기로 결심한 일본인들이 무기와 총기로 무장한 채로 오두막 앞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전혀 몰래 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일부는 말을 타고 있었으며 큰 소리를 내면서 가고 있었다. 일본인들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콘베 오두막에 있는 조선인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었다고 간주된다. 무장한 일본인들이 오두막에 접근했을 때, 이들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조선 남자들(마루야마와 그의 친구 또는 친척 두 명)이 집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 그들은 막대기와 같은 아주 원시적인 무기를 손에 들고 있었고, 숫자는 일본인보다 훨씬 적었지만 그들

은 여자와 아이들이 있는 집을 지키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다. 일본인 지도자 중 한 명인 호소카와 히로시(Hosokawa Hiroshi)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국인 중 한 명(아마도 마루야마)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무 막대기를 높이 들고 호소카와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호소카와는 자신에게 대검이 있고 자신의 뒤에 많은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도 있고 무서워하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운이 좋았고 조선인은 그렇지 않았다. 조선인이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이에 호소카와는 당황하지 않고 조선인에게 달려가 대검으로 등을 찔고, 그의 동료들도 부상당한 조선인에게 달려가 죽여버렸다. 또 한 명의 조선인은 총기로, 다른 한 명은 칼로 찔러 살해했다.

그 후에 일본인들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집 안에 아이와 여성이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깨닫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챈 그 여성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모든 아이들에게도 옷을 입히고 살인범 앞으로 나왔다. 아이들(특히 어린아이들)은 울고 있었지만 여성은 울지 않았고 일본인들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이 모습에 당황한 일본인들은 즉시 아이들과 함께 여성을 죽이지 않았다. 이후 아이들과 함께 여성을 데려간 남자와 일본인 지도자인 모리시타 야수오(Morishita Yasuo)는 1945년 소련군에 의해 총 맞아 죽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하지만 살인범을 만났을 때의 조선 여성의 태도는 일본인들을 당황하게 하였고 따라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사람을 마구 죽이던 (나중에 심문에서 알 수 있음) 일본인은 그 여성과 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이지 않았고 모리시타는 여성과 아이들을 다른 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그는 미즈호 마을 학살 사건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두 명의 일본인들에게 밤중에 그 여자와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이후 그가 표명한 주된 살해의 동기는 일본인들의 범죄를 소련군에게 알리면 안 된다는 이유였다.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조선인이 '미즈호 마을의 비극' 소설에서 묘사된 말없는 희생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문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선인의 본명을 밝혀내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큰 과제가 될 것 같다. 본명을 밝히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문서에는 61세의 조선인 윤양원(61)씨에 대한 신문 기록이 남아 있다. 윤양원 씨는 자신이 아는 조선인들의 본명을 알려주었다. 이러한 간접적인 증거를 연구함으로써 미즈호 마을 조선인의 역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내가 언급하고 싶은 또 하나의 문제는 살해된 한국인의 숫자에 관한 것이다. 사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 가포넬코의 책에서는 정확한 숫자가 나온다. 27 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살인 사건의 참가자 판결문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판결에 의하면 각 살해 참가자는 5 명, 18 명, 27 명을 살인했다고 나왔다. 가포넬코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살인 사건에 모든 범죄자들이 직접 연루된 것은 아니며, 누군가는 산으로 갔고, 누군가는 다른 마을로 파견되었고, 누군가는 경비로만 일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미즈호 마을에는 26-28명의 조선인이 영구적으로 살았지만 사건 직전인 1945년 7월에는 타지역에서 여러 조선인들이 수로를 건설하기 위해 마을에 온 사람들도 있었고, 때로는 피난민들도 들어왔다. 따라서 희생자는 28명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2명의 일본인 목격자는 36명이라는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경우 문서들을 자세히 연구하고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의 문제점은 심문을 받은 거의 모든 범죄자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시신을 직접 땅에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된 사람들의 수조차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것으로 나의 발표를 마친다. 미즈호 마을 학살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으며 1945년 8월의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한 책이 가능한 한 빨리 출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본사 편집부).

연례 한인디아스포라 체스 경기 개최

지난 16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체스클럽에서 전과 같이 연례 한인디아스포라



체스 경기(블리츠)가 개최되었다. 3일 풍설로 인해 경기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와 사할린주 체스연합회가 주최하는 경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번 경기에는 림 알베르트, 텐(정) 제니스, 이영복이 우승했고 베테랑 중에는 김석강 씨, 여성 중에서는 공 알리나가 우승했다. 학생 그룹에서는 봄비조 막심이 1위를 차지했다고 전해졌다. 경기 후 이들 모두에게 메달, 상장과 상금으로 시상했다.

재정 지원은 <에코인터스트로이>회사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가 하였다. 시한인회는 경기 준비 조직과 진행에 큰 도움을 준 체스 사범 마리니나 류드밀라와 이기수(위탈리)에게 감사를 표했다.

(본사 기자)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제공)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폭설(暴雪) / 오탁번

삼동(三冬)에도 웬만해선 눈이 내리지 않는 남도(南道) 땅끝 외진 동네에 어느 해 겨울 엄청난 폭설이 내렸다 이장이 허둥지둥 마이크를 잡았다 - 주민 여러분! 삼 들고 회관 앞으로 모이쇼잉! 눈이 좃나게 내려부렀당께!

이튿날 아침 눈을 뜨니 간밤에 또 자가웃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가 몽땅 무너져내렸다 놀란 이장이 허겁지겁 마이크를 잡았다 - 위메, 지랄나부렀소잉! 어제 온 눈은 좃도 아닝께 싸게싸게 나오쇼잉!

원종일 눈을 치우느라고 깡그리 녹초가 된 주민들은 회관에 모여 삼겹살에 소주를 마셨다 그날 밤 집집마다 모과빛 장지문에는 뒷물하는 아낙네의 실루엣이 비쳤다 다음날 새벽 잠에서 깬 이장이 밖을 내다보다가, 앗!, 소리쳤다 우편함과 문패만 빼꼼하게 보일 뿐 온 천지(天地)가 흰눈으로 뒤덮혀 있었다 하느님이 행성(行星)만 한 떡시루를 뒤엎은 듯 축사 지붕도 폭삭 무너져내렸다

좃심 좃심 다 좋은 이장은 윗목에 놓인 뒷물대야를 내동댕이치며 우주(宇宙)의 미아(迷兒)가 된 듯 울부짖었다 - 주민 여러분! 위따, 귀신 꼭하겠당께! 인자 우리 동네 몽땅 좃돼버렸소잉!

"눈이 내리면 저는 이 시를 꼭 찾습니다. <폭설>의 걸모습은 참으로 소란스럽습니다. 이장님의 마이크 확성기 소리도 그럴 테고, 마을 회관에서 삼겹살 굽는 소리 역시 아주 진동을 합니다. 하지만 행간을 들여다보면 밤새 소복소복 쌓인 마을 풍경이 아주 일품입니다. 숨 막힐 듯 쌓인 설경이 매혹적입니다. 2년이 흘렀건만 코로나가 아직까지 기승입니다. 이제,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눈을 치워내듯, 우리 인류는 코로나 역시 꼭 이기리라 믿습니다. 코로나가 가시면 청어회에 꼬냑을 마시러, 유즈노에 들러주세요. 물론 청어는 얼음을 뚫고 제가 직접 낚을 생각입니다. 한없이 정겹던 가가린 공원도 산책하고, 고르니 보즈두흐에서 스노우보드도 탈게요. 불타는 금요일 밤이면 물론 클럽도 들러야겠죠. 아내 몰래."



서울에서 허진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Шахматные баталии состоялись сред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16 января 2022 года в шахматном клуб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ся ежегодный традиционный турнир по блицу среди шахматистов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есмотря на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трудности, связанные с прошедшим бурным, турнир,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ЮСМООК и Шахматной федер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пешно состоялся. Призерами стали: Лим Альберт, Ден Денис, И Ен Бок. Среди ветеранов победил Ким Сок Кан, среди женщин - Гон Алина, школьников - Бомбизо Максим. Все призеры награждены медалями, грамотой и денежными призами.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турниру обеспечил ООО "Экоинтерстрой" и ЮСМОО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выражает огромн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подготовку и проведение шахмат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Маринину Людмилу Иннокентьевну и Виталию И (И Ги Су).

(Информация и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ы ЮСМООК)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ручил награды сахалинским журналистам

18 января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в честь Дня российской печати чествовали работников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Торжество должно было состояться 13 января, но из-за циклона губернатор и все регион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ерешло на экстренный режим работы, занимаясь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области.

— СМИ — это нить, которая связывает власть и общество. А значит,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союзнико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деле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ах, решения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задач, стоящих перед Сахалином и Курилами. Средства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обладают серьезной силой. Они могут как сплотить общество, так и разобщить. Мощным фактором в этом стали фейки. В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дезинформации крайне важную роль играе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работа журналистов, объективное освещение событий. От этого во многом зависит общественная обстановка в регионе и его развитие,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здаются условия для эффективной работы СМИ. Отдаленны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получают доступ к высокоскоростному интернету.

Губернатор поблагодарил журналистов за помощь в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 которые волнуют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Этими же вопросами занимается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где актуализируется вся самая актуа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СМИ в своей работе используют этот ресурс.

По словам главы региона, благодар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работе СМИ во время пандем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далось предотвратить панику.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получали достовер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реальной обстановке и предпринимаемых шагах. Журналисты также самоотверженно работали во время прошедшего снежного циклона. Жителей оперативно информировали обо всех последствиях стихии и их ликвидации.

За многолетний и добросовестный труд и творческие достижения почетными грамот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градили шестерых журналистов, а также редакцию старейшей областной газеты «Советский Сахалин». Среди награжденных —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Сахалин-Ньюс» — учредитель и издатель газеты «Сахалинская жизнь» Валентина Гончаренко,



редактор отдела тематических программ телевидения ГТРК «Сахалин» Елена Мельник, старший корреспондент издательского дом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егодня» Юлия Вятржик,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Холмская панорама» Лидия Антипина,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анивской районной газеты «Утро Родины» Ирина Спиридонова, специальный корреспондент «Советского Сахалина» Людмила Степанец.

Благодарностями губернатора поощрили главного редактора холмской газеты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Людмилу Орлову и фото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Ли Е Сик.

Талантливого фотомастера наградили еще и памятным знаком «В честь 75-ле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го авторские выставки проходили в Корее, Японии, Украине. Работы Ли Е Сик отмечены наградам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курсов. Памятным знаком поощрили также Николая Савченко — ветерана журналистики, который проработал в периодической печати более 40 лет.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губернатора получили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филиала — начальник службы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программ телевидения ГТРК «Сахалин» Сергей Бондаренко, художник компьютерной графики издательского дома «Губернские ведомости» Дмитрий Ким, ответственный выпускающий редактор телевидения издательского дома «Губернские ведомости» Лариса Протасова, а также оператор электронного набора и верстки газеты «Долинская правда» Юлия Матюхина и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агентства SakhalinMedia Максим Мажарин.

(Материал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러시아 사할린동포 한국어교육 온라인 수강생 모집]

총청남도 국제통상과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사할린한국교육원

1. 강의 운영 계획

강좌 구분	1학기 기간	2학기 기간	시간	대상자	교육 내용
한국어능력 시험 중급 (토픽 II)	11주, 100시간 2022.02.03.~04.11. (1일 3시간)	11주, 100시간 2022.07.22.~10.17. (1일 3시간)	사할린 시각 18:00~21:00	토픽 3,4급 취득을 희망하는 한국어 학습자	문제 유형 파악 연습문제 풀이 등
고급 한국어	17주, 100시간 2022.02.07.~06.10. (1일 2시간)	17주, 100시간 2022.08.22.~12.23.. (1일 2시간)	사할린 시각 18:00~20:00	한국어중급과정 이수한 학습자	사회문화, 정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 토론 등

2. 참여(신청 방법)

- (대)학생
 - 한국어채택교 학생은 한국어 선생님(교수)께 신청 ▶ 교육원 제출
 - 기타 학교 학생은 한국교육원으로 전화☎: 505696 후 방문 신청
- 기타 참가 희망자 : 한국교육원으로 전화☎: 505696 후 방문, 신청서 제출
- 한국교육원 『한국어 중급 과정』 이수자 : 강사님께 신청 또는 교육원에 방문 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2022.1.28.(금)
- 각 학급 15명 내외 참석 가능, 온라인(ZOOM)으로 참여하므로 가능한 자신의 네트워크 여건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교육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http://sakhalinedu.com>)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 사할린한국교육원장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КНДР запустила дв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Утром 17 январ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пустила две,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в восточ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Объединённом комитете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ракеты стартовали с территории аэропорта Сунан в Пхеньяне в 8:50 и 8:54. Они пролетели около 380 километров, достигнув высоты 42 км. Максимальная скорость полёта составила 5 Маха, что в пять раз превышает скорость звука. По мнению представителя комитета, последние испытания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овышение способност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запускать несколько ракет подряд с высокой точностью.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как и 14 января, были запущены оперативно-так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KN-23, созданные по образцу российск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Искандер». Низкая высота после старта, короткое общее время полёта и способность выполнять манёвр «подтягивания» к терминалу затрудняют её обнаружение и перехват традиционными системами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ы. Между тем,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РК обла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ями как для обнаружения, так и для перехвата данных ракет.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енные проводят детальный анализ обстоятельств запусков. Они следят за перемещения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войск, находясь в состоянии повышенной готовности,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Это четвёртый с начала года ракетный запуск, произведённый Пхеньяном.

Система вакцинальных пропусков отменена для крупных магазинов и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тменило требование предъявлять сертификаты о прививках против COVID-19 для входа в учрежд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музеи, кинотеатры и крупные розничные магазины по всей стране.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вон Док Чхоль объявил об этом 17 января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свящённом мерам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пандемию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 его словам, система вакцинальных пропусков отменена для тех объектов, в которых можно постоянно находиться в масках. Он добавил, что после ужесточения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число случаев инфекции существенно сократилось. 14 января Сеульский суд п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 делам приостановил обязательное предъявление вакцинальных пропусков для входа в универмаги и дисконтные магазины. Ранее было отменено требование о наличии таких пропусков у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в возрасте от 12 до 18 лет, проживающих в столице, которые посещают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е объекты. 1.023 жителя Сеула, подавших иск, считают, что программа вакцинальных пропусков дискриминирует непривитых людей.

В РК будут усилены требования для въезжающих из-за рубежа

В целях борьбы с ростом числа завозных случаев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включая вариант Омикрон, въезжающим в РК из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необходимо будет предъявить на регистрации на рейс отрица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ПЦР-теста, сделанного не ранее чем за 48 часов до вылета. До сих пор действовал срок 72 часа. Для перемещения из аэропорта к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необходимо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собственный автомобиль, либо специальные автобусы, поезда и такси. Об этом было объявлено 13 января на брифинге по итогам заседания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Данные меры планируются ввести в действие с 20 января. Кроме того, в случае, если в прибывшем самолёте будут выявлены трое или более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пассажиров, полёты по данн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могут быть прекращены на одну неделю. 12 января под данное ограничение подпадали семь рейсов из пяти стран. Эта мера будет введена в действие после согласования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ведомствами.

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номинирован на премию Гильдии актёров США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вошёл в число номинантов на премию SAG Awards Гильдии актёров США в четырёх категориях. Номинанты 28-й ежегодной премии были объявлены 12 января. 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был выдвинут на высшую награду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актёрский состав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сериала». Помимо этого, сериал стал номинантом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ая команда каскадёров в телевизионном сериале». Звёзды сериала Ли Чжон Чжэ и Чон Хо Ён претендуют на премии за лучшую мужскую роль и лучшую женскую роль в телевизионной драме.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состоится 27 февраля в Санта-Монике.

(RKI)

КНДР возобновил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е сообщение с Китаем

После полуторагодового перерыв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озобновил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е сообщение с Китаем. Первый состав прибыл из КНДР в Поднебесную 16 января, а второй — утром 17 января.

Зарубежные эксперты полагают, что это Пхеньян скорее всего решил ослабить самоизоляцию, которую ввел из-з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с начала 2020 г., хотя пока сложно с уверенностью утверждать о полноценном возобновлении торговли КНДР с зарубежьем.

Слухи о том,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от-вот откроется и начнет хотя бы в ограниченном количестве торговлю по суше», ходили уже давно, но всякий раз они не подтверждались. КНДР отреагировала быстрее всех на вспышку COVID-19, прекратив регулярное пассажирское сообщение по суше и воздуху еще в самом начале 2020 г., а с августа того же года вообще полностью прекратили движение и грузов по суше. Если что-то в КНДР и впускали, то только через порты, и то в очень ограниченном количестве, и после длительного карантина. Люди же вообще не могли попасть в КНДР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что коснулось в полной мере и оставшихся за рубежом северян, а выезд иностранцев из Страны чучхе был и остается связан с большими трудностями. В общем, КНДР ушла в жесткую самоизоляцию, стремясь не допустить проникновения в страну коронавируса, которого, согласно официальной позиции Пхеньяна, в КНДР пока не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ообще.

Похоже, что вчера, 16 января, ситуация стала меняться. Большой ажиотаж среди экспертов и журналистов,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хся на ситуаци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провоцировал одноминутный видеоролик, который появился в китайских соцсетях. На видео было видно, как в воскресенье, примерно в 9 часов утра, из КНДР через соединяющий через реку Амноккан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и Китай «Мост дружбы» проследовал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поезд и остановился н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станции китайского приграничного города Дандун. Автор видео сопроводил ситуацию пояснением на корейском: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ибывает первый поезд». Это произошло впервые за последние полтора года, когда КНДР полностью прекратила сообщение с Китаем по суше. Отметим, что в «докоронавирусную эпоху» через этот мост ранее шло более 70 процентов всего внешнеторгового оборота КНДР, почему его некоторые и называли «мостом жизн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это главная магистраль, которая соединяет Страну чучхе с внешним миром.

Журналисты, эксперты и источник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Южной Кореи вскоре подтвердили, что поезд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ибыл, он состоял из одного локомотива, одного пассажирского и 13 грузовых вагонов. Южнокорейские телеканалы также показали, что на таможенный Дандун стали прибывать вереницы китайских

грузовиков, которые разгружались, после чего товары скорее всего оформлялись и складировались в вагон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остава. Местные источники в Дандуне подтвердили, что началась отгрузка товаров для отправления из Китая в КНДР.

Пока эксперты смаковали подробности «воскресного экспресса» из КНДР, десятки раз пересматривая минутный видеоролик, к утру понедельника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тот состав скорее всего ночью уже проследовал обратно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а вместо него примерно в 7 утра в понедельник из КНДР прибыл еще один грузовой состав, состоявший из 15 вагонов и тоже встал в Дандуне, ожидая загрузки. По мнению специалистов, скорее всего из КНДР составы прибывали пустыми, забирая партии из Китая. Точное содержание отгруженных из КНР в КНДР партий товаров установить не удалось, но, как сходятся во мнение специалисты, наверняка это были товары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а также лекарства, медикаменты,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профилактик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 маски, стальные наборы, медицинские костюмы и прочее.

Пока, впрочем, неясно, является ли данное возобновление движения поездов между КНР и КНДР временным или можно говорить уже о регулярном движении хотя бы грузовых поездов. Как сообщило южнокорейское информгентство «Ёнхап», ссылаясь на анонимный источник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еуле считают, ч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 постепенном выходе КНДР из самоизоляции. Вряд ли Пхеньян быстро пойдет на возобновление пассажирского сообщения с другим миром, но в любом случае нынешнее событие говорит о движении КНДР в сторону ослабления самоизоляции. «Все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Китаем официально возобновилось движение товаров по суше», — отметил в беседе с «Ёнхап» чиновник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ызывает также интерес и вопрос о том, возобновит л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е сообщение КНДР и со второй страной, в которую из Страны чучхе ранее регулярно ходили поезда, то есть с Россией. РФ и КНДР соединены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веткой между станциями Хасан (РФ) и Туманган с выходом затем на порт Расон (КНДР). Движение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также было прекращено из-за опасени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властей по поводу COVID-19, а выезд из КНДР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ть не так просто, даже когда в этом была экстренна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тметим также, что в Расоне до сих пор находится более полтора десятков россиян из состава сотрудников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овместн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Расонконтранс». Данное СП занимается реализацией госпроекта «Хасан-Раджин», который также пришлось временно заморозить из-за введенной КНДР самоизоляци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Экономика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а вместе с ней растет зарплата

Сеул, 17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Средня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Южной Кореи увеличилась на пять процентов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в 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ушедшего года, что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высо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за три года и шесть месяцев, отчасти благодаря щедрым премиям.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работникам, работающим по контракту более одного года, в 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выплачивалось в среднем 3,75 миллиона вон в месяц, что на 177 000 вон или пять процентов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и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высоким квартальным увеличением с первого квартала 2018 года (US\$1 = W1 181).

Темпы роста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составляли от 4,1

до 7,9 процента в 2018 году и от 2,9 до 3,5 процента в 2019 году, но снизились до от минус 0,1 — 2 процентов в 2020 году на фоне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В минувшем году они несколько восстановились до 4,2 процента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и 4 процентов во втором квартале.

«В 2020 году многие работодатели отменили или сократили бонусы в условиях изоляции»,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 «Но в минувшем году некоторые компании выплатили специальные бонусы благодар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бизнеса».

Временные работники,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менее года, и поденщики получали в среднем 1,7 миллиона вон в месяц, что на 4,2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месяц — 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граждает спасателей, медиков и волонтеров, отличившихся во время циклона

За грамотн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действия, выдержку, чувство долга и самоотверженность, проявленные в чрезвычайной ситуации, 13 человек поощрены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губернатора.

13 января из СНТ, расположенного недалеко от охотской трассы, поступил вызов к мужчине с подозрением на инсульт. Проезд оказался недоступным. Более полукилометра работники скорой помощи шли пешком по сугробам. Добравшись до пациента, фельдшеры поняли, что случай очень тяжелый. Медики оперативно приняли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ы и на волокушах повезли пациента до машины скорой помощи. В дороге к ним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спасатели. Они на руках несли мужчину часть пути. Сахалинца доставили в городскую больницу, где начали оказывать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ую медпомощь.

14 января из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а поступило сообщение о двух детях, которые отравились угарным газом в машине. Так как подъездных путей для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не было, бригаду фельдшеров отправили на снегоходах, которыми управляли мужчины, вызвавшие помочь медикам. Благодаря оперативности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действиям фельдшеров и добровольцев пострадавших быстро доставили в больницу.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их состояние стабилизировали, угрозы жизни и здоровью нет. Дети уже выписаны из больницы.

— У нас сейчас идет активная работа по борьбе с последствиями циклона. Все работают дружно. И оперативные службы, и коммунальные, и рядовые сахалинцы. Сегодня мы награждаем тех, кто проявил мужество и героизм в непростых ситуациях и спас людей в тяжелейших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ях. Спасибо вам большое, — обратился к участникам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 письмом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ощрены: врач скорой помощ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тон Винников, фельдшеры Маргарита Касьян, Евгения Козырева и Айас Санаков, водитель скорой помощи Виталий Гуров и транспортировщик станции скорой помощи Мирадил Кадыров, заместители начальника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ого отряда Николай Михеев и Андрей Петров, спасатели Юрий Грищенко и Виталий Мошаров, коллектив «SakhExtremeTravel» в лице руководителя организации Евгения Сафонова, а также руководитель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ого отряда «Сова» Евгения Тучкова и волонтер отряда Анна Пак.

Почти в 2 раза увелич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электромобил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21 году

В янва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считывалось 146 электрокаров.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декабрь 2021 года в регио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уже 280 электромобилей. Автовладельцы связывают рост количества электриче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с развитием заряд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 Электромобиль очень экономичен. Стоимость его зарядки гораздо ниже, чем заправка бензинового авто. Плюс низкий транспортный налог. Читал, что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его вовсе отменят, — отмечает автолюбитель Виктор Абрамов.

В 2021 году для владельцев электромобилей действовал сниженный в 2 раза транспортный налог. В 2022 году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н будет обнулен. Кроме того, для водителей электрокаров выделяются специальные парковочные места возле зарядных станций.

— Помимо экономичности, электротранспорт является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м. Учитывая задачи по достижению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в 2025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ет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рынка электротранспорта. Электромобили — существенный инструмент декарбонизации экономик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энерге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хаил Гузенко.

В региональные нормативы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ого проектирования внесены изменения, предписывающие предусматривать устройства заряд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новых объектах градостроительства.

Более 17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сэкономили держатели «Карт сахалинца» за полгода активной работы проекта

Проект был запущен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егодня партнерами проекта стали уже более 1300 торгово-сервис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не только платежный инструмент, но и заменяет отде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и проездные билеты,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ать кешбэк и скидки от партнеров проекта. К примеру, в новом горнолыжном сезоне обладатели карты получают скидки от 5 до 10 процентов на покупку и прокат спортивного снаряжения, обучение зимним видам спорта, а также на разовые подъемы и ски-пассы.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едется системная работа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новых партнер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давать обладателям карт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кидки и возможности.

— Количество партнеров проекта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растет ежедневно. Мы признательны социально-ориентированному бизнес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самозанятым, которые подключаются и предоставляют владельцам карт

скидки на свои товары и услуги.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 у проекта появляется все больше партнеров — магазинов, аптек, гостиниц и так далее, которы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льзуются спросом у жителей,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Сегодня держатели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 магазинах и кафе скидки от 3 до 10%. Среди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партнеров — сеть супермаркетов «Первый семейный», «Матрешка», «Белорусский фирменный», «Симост», «Реми», «Экономыч», кафе «Лиана» на средней площадке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Папа-кофе», «Кулибин», «Мельница».

Помимо кафе и магазинов, держателям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доступны скидки в аптеках, салонах красоты, автомойках, а также на проезд в автобусах, посещение спортивных и культурных учреждений, услуги туроператоров. Полный список партнеров проекта размещен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eks.sakhalin.gov.ru.

— Не может не радовать развитие единой системы,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объединить тако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сервисов в одной карте и сделать жизн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удобнее. Поэтому сеть супермаркетов «Первый Семейный» подключилась к проекту. Наши клиенты получают скидку 3 процента по карте сахалинца, что в совокупности с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акций, которые мы проводим каждые две недели, позволяет делать покупки еще выгоднее, — рассказал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сети супермаркетов Михаил Болутенко.

Сегодня держателями карт стали уже более 5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Напомним, оформить пластик можно в отделениях шести банков-партнеров: Газпромбанк, банке «Итуруп», Сбере, ВТБ, Россельхозбанке,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банк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свободил часть собственников от взносов на капремонт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из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исключены дома, в которых менее 5 квартир. 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подобные изменения затрагивают 184 дома в 10 районах.

— Мы решили освободить от платы за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собственников квартир в небольших домах. Как правило, такое жилье люди сами поддерживают в хорошем состоянии. Поэтому справедливо избавит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т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взносов,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ибольшее число таких домов — 67 — расположено в Охин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52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37 — в 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е. Остальные дома находятся в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Анив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м,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Тымовском и Холмском районах.

Начисление взносов на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в указанных домах прекратилось с 16 декабря 2021 года. Уплаченные средства будут возвращены собственникам помещений за минусом уже произведенных расходов на выполнение капремонта или разработку проектно-смет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 Чтобы уплаченные взносы вернулись собственнику, необходимо направить в адрес Фонда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явление и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право собственности. Если был открыт спецсчет, то документы направляются владельцу спецсчета, — подчеркнул руководитель Фонда капремонта Евгений Михлик.

Вместе с заявлением требуется предоставить:

- если собственник помещения физическое лицо — копию документа, удостоверяющего личность собственника помещения 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я, и выписку из Росреестра, подтверждающую право собственности на помещение в данном многоквартирном доме (выданный не ранее чем за 30 календарных дней);

- если собственник помещения юридическое лицо — копию документа, подтверждающего личность представителя (если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выписку из Росреестра, ЕГРЮЛ (выданный не ранее чем за 30 календарных дней).

Заявление и документы мож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лично или по почте — ценным письмом с описью вложения и уведомлением о вручении.

Заявления рассматривают в течение 5 рабочих дней со дня поступления. Средства должны вернуться в течение 20 рабочих дней с момента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я о возврате.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ся по вопросам возврата средств за капремонт можно по телефону горячей линии ЖКХ: *0065 (с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или 8-800-302-00-65.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после ремонта открылась детская поликлиника

В здании 1985 года постройки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роведен впервые. Рабочие заменили сет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одоотведения, отопления, вентиляции и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я. Выполнили ремонт кабинетов, установили новые двери и заменили напольное и настенное покрытие.

В смену поликлиника принимает до 35 детей. В период подъема ОРВИ — до 150. Ремонт помещений позволил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 распределить потоки пациентов и создать для них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 Во время ремонта полностью меняли инженерные и 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е системы, убрали перегородку. В целом добавилось пространства, стало больше света,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й ЦРБ Елена Бабинец.

— Мы просто в восторге. В районе сильнейшая педиатрическая служба. Все участки укомплектованы на 100 процентов. И теперь для нас созданы такие условия.

Счастливы и медиц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и пациенты, — поделилась заведующая поликлиникой, заслуженный врач России Людмила Козлова.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качество ремонта оценил отец двоих малышей Егор Демидов. На прием к врачу сахалинец привел старшего сына Марка, которому скоро исполнится два года.

— Часто здесь бываем. Изменения колоссальные. Можно прийти, раздеться, в комфорте ожидать приема. К врачу попадаешь практически без ожидания. Я — работающий человек. Сегодня во время обеденного перерыва пришел с сыном. Все успел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Егор Демидов.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в медицинском учреждении проведен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сновной акцент в ней был сделан на районы и это не случайно, так как долгое время жители территорий жаловались на низкую доступ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и состояние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этому принципиальной позицией губернатора стало внимание к муниципалитетам.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проекту в текущем году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ожидают Курильскую, Холмскую районную больницу, а также Синегорскую участковую больницу и детскую поликлиник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программой предусмотрен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нескольких отделений ЦРБ.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порядился оказать поддержку мэр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обустройств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снежных полигонов

Это позволит существенно разгрузить транспортные артери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движение по которым сегодня затруднено в том числе из-за крупной спецтехники — большегрузы в круглогодичном режиме доставляют снег на южную и северную площадки города.

Первы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полигон планируется открыть на улице Гвардейской, на бывших землях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Ф. Вопрос размещения второго такого объекта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в совместной проработке профиль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 Необходимо как можно быстрее ликвидировать последствия циклона. Важно, чтобы наши жители могли с комфортом передвигаться по городу и за его пределы. К подготовке первого полигона следует приступить уже этой ночью, в сжатые сроки необходимо определиться со второй площадкой,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олигон на Гвардейской будем обслуживать силам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Для этого у нас есть необходимые специалисты. Технику подготовим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Для обслуживания второго объекта нужен оператор. Приступаем к переговорам, — подчеркнул мэр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В ходе совещания губернатору доложили о результатах работы по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циклона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В частности, более 30 километро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дорог уже полностью расчищено до норматив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от бордюра до бордюра». Также только за сегодня всеми видами работ охвачено почти 67 километров дорог. План на эту ночь —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ещё 74 километр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городские подрядчики продолжат уделять наведению порядка на магистральных улицах, где сосредоточен максимальный трафик горожан и жителей ближайших районов. Это проспекты Мира,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обеды, улицы Ленина, Комсомольская, Бельничная, Сахалинская и Горького.

Для проезда транспор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асчистили территории более 700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Доступ техники к оставшимся придомовым территориям планируется восстановить в течение завтрашнего дня.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вечеру городские службы освободили от снега 309 площадок для сбора мусора. Осталось — 81. Полностью работы планируют завершить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Отходы вывезены с более чем 200 площадок.

С помощью интерактивной карты https://map.sakhalin.gov.ru/mobile/map/Clean_Snow/#/ можно узнать о расчистке региональных дорог, а также статус каждой конкретной улицы, внутриквартального проезда или дво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еленый — работы выполнены, желтый — в работе, красный — на очереди, синий — работы в плане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На прием обращений по расчистке города переориентирована горячая ли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ЖКХ: 8-800-302-00-65 со стационарного телефона или *0065 с мобильного.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вечеру на нее поступило более 500 обращений. Благодаря сервису люди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узнать сроки расчистки конкретных дворов.

Также вопрос можно задать в Instagram @informgkh65, через мессенджер WhatsApp +79248844203 (звонки не принимаются, только сообщения) или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informgkh@sakhalin.gov.ru.

Кроме того, сообщения, касающиеся интерактивной карты, можно направлять через портал «Сахалин.онлайн». Для обратной связи с жителями работает колл-центр: 312-780. Звонки принимаются с 9.00 до 18.00.

С 12 по 15 января южный Сахалин находился под воздействием мощного циклона. Основным удар пришелся 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где за три дня выпала почти двухмесячная норма осадк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함께 미래를 향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퍼포먼스' 행사 가져

꿈은 눈처럼 흩날리고 있네
 장성 안팎 아름다운 강산은 한 쪽의 그림처럼
 하얀 단장을 하고 출발을 기다리고 있고
 순결한 얼음과 눈은 우리의 동화를 정성껏 쓰고
 사랑은 눈처럼 녹아 내리고 있네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여의도 한강문화공원에서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행사가 뜨겁게 열렸다.

행사 참석자들은 양손에 한국과 중국 양국의 국기를 흔들면서 류준규 가수의 인도 하에 베이징동계올림픽 주제가 '눈과 얼음 춤'을 함께 불렀다. 차디찬 겨울바람도 아랑곳하지 않고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사랑과 지지의 마음을 담아 열렬히 표출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주제는 "함께 미래를 향해(一起向未来)"이다.

세계의 많은 올림픽 참가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깨끗한 눈과 얼음 위에서"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치면서 즐거운 축제의 장을 만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올림픽과 스포츠의 정치화를 반대합니다", "깨끗한 눈과 얼음 위의 뜨거운 우리의 만남",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 힘내자" 등의 크고 작은 현수막을 펼쳐 든 이들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한강강변에서 시작해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면서 퍼포먼스를 펼쳤다.

당일 저녁 한중 수교 30주년 및 베이징동계올림픽 성공 기원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주한중국대사관의 주관 하에 '한중우호음악회'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돼 행사의 의미를 더 빛나게 했다.

한편, 12일부터 기사는 여의도 국제환경재단 사무실에서 한중도시우호협회 권기식 회장과 국제자연환경교육재단 남원희 상임이사를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권기식 회장은 한중 관계의 발전과 우호 협력에 많이 기여한 분. 한중 간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중 친선에 힘을 보탰다. 그리하여 중국 외교부 왕이 부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특별한 접견을 받기도 했으며, 본인은 또 중국 중앙방송 CCTV나 신화사통신 등에 자주 소개됐다.

권기식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며 "베이징동계올림픽은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대축제이자 대화합의 장이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아시아에서 치러지는 매우 중요한 스포츠대회이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모처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를 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 짜유!짜유!"라고 파이팅을 외쳤다.

남원희 국제자연환경교육재단 상임이사도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전 세계인의 스포츠축제인 2022년 베이징 북경동계올림픽이 안전하고 평화로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올림픽 현장에 따라 모든 참가국이 서로 존중하고 개인과 팀은 운동경기에서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고 진한 우정을 나누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원한다. '다 함께 미래로!' 베이징동계올림픽 파이팅!"하고 외쳤다.

14일 오전 9시, 기사는 의정부시청 스피드 스케이팅 제갈성렬 총감독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의정부시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인 그는 1996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이고 1992년과 1994년 알베르빌 및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선수였으며,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SBS 해설위원을 맡았었다. 올해도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SBSTV 해설위원의 신분으로 1월 31일 북경으로 출정할 예정이다.

1996년 당시 하얼빈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중국 친구들과 그는 아직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친구들은 아주 순수하고 친절하다"며 "지금 그 친구들은 대부분 지방정부 고위직이나 사업가로 변신을 해 잘 나가고 있지만 나를 만나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친절하게 잘 대해준다"고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는 SBSTV 해설위원답게 아주 활발하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2022년 2월 4일부터는 중국 베이징에서 모든 세계 국민들이 응원하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한국과 중국은 전통적으로나 문화와 역사를 볼 때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나라이다. 앞으로 한중, 또는 중한 이웃국가가 더 힘을 합쳐서 같이 협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간다'는 슬로건과 함께 베이징동계올림픽이 곧 개최될 것인데, 이 올림픽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올림픽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베이징 올림픽 자유! 힘내세요!"라고 인사를 했다.

15일 오후 3시, 기사는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신문 사무실과 서울국제학원에서 개최된 '2022년 베이징올림픽 성원' 간담회에 참석해서 이번 동계올림픽이 진정 '세계 모든 국민들의 평화와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한중 지식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행사는 한중도시우호협회(회장 권기식), 동북아신문(대표 이동렬), 길림신문 한국지사(상임이사 이호국), 국제자연환경교육재단(상임이사 남원희) 주최, 재한동포문인협회(회장 김경애) 주관, 한중삼강포럼(공동대표 장경률), 중국동포타운신문(편집국장 김정룡), 한중포커스신문(대표 문현택), 한국문예작가회(회장 서병진) 등의 협찬으로 이뤄졌다.

길림신문 한국지사 이호국 기자

электронный счет в сумме 50 тысяч рублей, после чего перевел 75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указанный абонентский номер. 400 тысяч рублей мужчина перевел на указанный номер карты. Еще 150 тысяч рублей — для пополнения брокерского счета. Зайдя в приложение, потерпевший обнаружил, что счет заблокирован. Далее аферисты общили, что заявителю необходимо застраховать свой счет, заплатив 5000 долларов. После этого потерпевший понял, что связался с мошенниками, и обратился в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А 36-летний ж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разместил на местном сайте объявление о продаже горнолыжного шлема. Ему пришло сообщение от потенциального покупателя, готового приобрести продаваемое имущество через транспортную компанию. Заявитель прошел по ссылке, где указал информацию о себе и ввел номер карты, после чего произошло списание.

Другой ж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ешил продать охотничью амуницию и лишился таким образом 4500 рублей.

30-летний житель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путем перевода оплатил интимные услуги на 10 тысяч рублей, но услуги ему не предоставили. По поиску в браузере он нашел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объявление, после чего перешел по одной из предоставленных ссылок, далее он совершил перевод по указанному номеру, после чего с ним перестали выходить на связь.

По всем фактам возбуждены уголовные дела. Ведется следствие.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우리말로 깨닫다]

박물관은 살아있다

박물관은 왜 갈까요? 박물관의 전시물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박물관은 영원한 삶의 증거입니다. 우리 삶이 영원하다고 할 때, 그 시작은 기억에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행복합니다. 박물관은 조상들의 간절함과, 우리 조상의 삶 그 자체입니다. 박물관에서 선조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박물관에서 간절함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은 많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상징물은 저마다 사연이 있을 겁니다. 상징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이나 만든 사람, 그 앞에서 기도한 사람이나 모두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사연은 눈물에 눈물을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사연이 이루어졌기 바랍니다. 아니 사연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간절함에 서로 따뜻했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물관에서 걸모습을 봅니다. 걸으로 드러난 화려함을 봅니다. 물론 아름다움을 보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아름다움에 더하여 그 간절함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물관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전에 불교국가에서 온 제자들과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었습니다. 우리나라 유물에는 불교적인 것이 많습니다. 저는 종종 조선시대에도 불교국가였다면 우리 불교 유적은 정말 대단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로서 우리를 발전시켰지만 불교문화의 쇠퇴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곳이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옛 모습을 없애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귀한 문화재가 사라진 것도 아쉽습니다. 외적의 침입도 문제지만 우리끼리의 다툼으로, 특히 한국 전쟁으로 불타 없어진 유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황룡사 9층탑을 실물로 보았다면 어땠을까 늘 아쉽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박물관에는 불교유물이 많습니다. 특히 부처님이 많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정성이 가장 깊이 들어간 게 종교적 유물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가사유상 앞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나 적막하면서도 고고한 분위기인지, 깨달음의 순간은 무엇인지 저의 느낌을 설명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조용히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반가사유상을 유물로 보고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부처님이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장면입니다.

그 후 저는 종교적 유물을 만나게 되면 가벼운 묵상이나 참배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일본 교토에서 만난 반가사유상 앞에서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어떤 종교의 유물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당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간절함을 보고, 저의 간절함을 봅니다. 그러면 박물관은 살아있는 모습으로 저에게 대답합니다. 박물관은 예전의 모습을 전시해 놓은 곳이 아니라고. 박물관은 우리 앞에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살아있다고. 박물관은 간절한 마음이 만나는 곳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박물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며칠 전에 미세먼지로 세상이 뿌옇고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날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습니다. 사유의 방에서 두 분의 반가사유상을 만났습니다. 사유의 방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우리나라의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이 나란히 전시된 공간입니다. 삼국시대 6세기 후반과 7세기 전반에 제작된 반가사유상 두 분을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깊은 사유의 공간이네요. 잠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습니다.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박물관에 가 보세요. 맑고 행복한 위로를 경험하실 겁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이 모든 사건들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Сахалинская сельчанка инвестировала 3 миллиона в мошенников

15 января в дежурную часть УМВД России по горо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поступило заявление от 54-летней жительницы поселка Некрасовка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о том, что в период с 24 декабря 2021 года по 13 января 2022 года неизвестные путем обмана похитили у нее 3 210 000 рублей.

Женщина в интернете увидела рекламу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перешла по ссылке и заполнила анкету. После этого с ней связались и сообщили, что при успешном вложении финансов она сможет получить хорошую прибыль. Потерпевшая поочередно перечислила на четыре банковских счета вышеуказанную сумму. После неизвестные перестали выходить с ней на связь.

В этот же день в полицию обратился 64-летний ж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ужчина сообщил, что в период с 30 декабря 2021 года по 1 января 2022 года у него путем обмана похищено 748 500 рублей.

Мужчина через телефон зашел на сайт некоей глобальной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компании, где решил заработать на инвестициях. С ним связался неизвестный и сообщил,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перевести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биржу. Заявитель пополнил свой

"사할린한국교육원" 2022-2023학년도 수강생 모집

1. 신청기간: 2022년 1월 17일~ 1월 31일
 2. 신청희망 강좌
 (1) 한국어 : 입문, 초급, 중급, 고급 (충남신문대학- 온라인 수업), 토픽(II) (온라인수업)
 (2) 문화교실 : 한국문화(중급, 초급), 세계민속춤, 재미난 한국어(원장-노래와 한자성어)
 3. 수업 시작일 : 2022년 2월 7일(월)
 4. 문의 전화 : 50-56-96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на 2022-2023 учебный год

1. Запись: с 17 января по 31 января 2022 г.
 2. Приглашаются все желающие
 (1)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водный, начальный, средний, высший (при поддержке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нмун, (занятия онлайн) уровни, ТОPIK II (занятия онлайн).
 (2) Уроки культуры: Культура Кореи (средний, начальный), традиционные танцы мира, весёлый корейский (занятия с директором - песни и иероглифы)
 3. Начало занятий: **7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4.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50-56-96

81회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모집 공고

1. 기간 및 장소
 ◦ 원서 접수 기간: 2022년 1월 11일~1월 31일(평일 09:00~17:00)
 ◦ 원서 접수 장소: 사할린 한국교육원(전화 4242-505-696)
 2. 원서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수용인원(100명)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직계 가족 외에 대리 접수 불가.
 3. 응시 수수료: (TOPIK1) 1,000루블, (TOPIK2) 1,200루블
 4. 접수시 준비물: 증명사진 1매(3cm×4cm), 응시 수수료, 신분증
 5. 성적 발표: 2022년 11월 25일
 - 성적증명서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무료 출력 가능
 6. 시험 일자 : 2022년 4월 10일(일)
 7. 시험 장소 : 사할린한국교육원(사할린한인 문화센터 내)

한국 남양주에 계시는 이수진님께 드리는 생신 축하문

사할린주 이산가족협회 명예 회장 이수진 씨의 팔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기간 사할린이산가족협회 사업, 사할린 동포 사회를 위해 많이 노력하신 데 대해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모국의 따뜻한 품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즐기시며 무병장수 하시길 기원하고 손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주노인회**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клам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  **91** ЗАВЕДЕНИЕ
-  **684 200** ЗАКАЗОВ
-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